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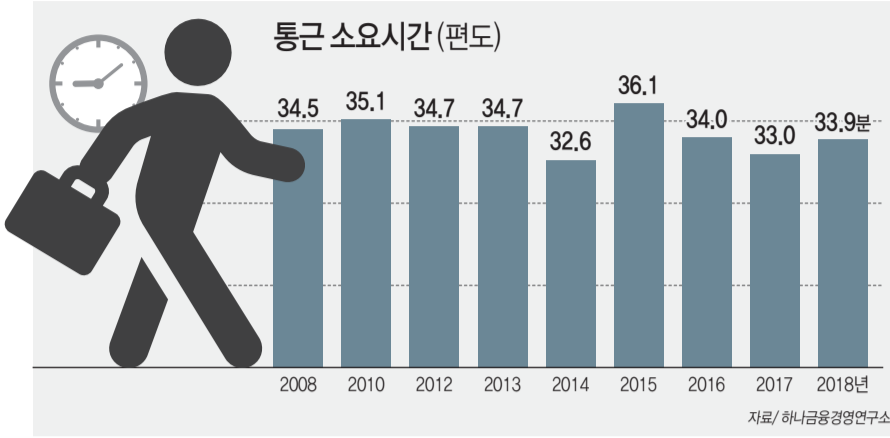
출근시간 늦춰져 '직주근접' 선호... 칼퇴하고 '워라밸'

서울 직장인 출퇴근 트렌드 변화

하나금융경영연, 지하철데이터 분석

증권사 많은 서남권, 7시대 출근 ↑
9시대 출근 강남 6%p, 구로 5%p ↑

서울거주자 출퇴근에 평균 1시간8분
시민 88% 주 52시간 근무제 '인지'
인지자 44% "초과수당 감소" 부정적



서울시 직장인의 출근이 늦어지고 퇴근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서울시 직장인의 출퇴근 트렌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 직장인의 출근 시간은 늦어진 반면 퇴근 시간은 빨라졌다.

또 거주지와 직장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직장인이 51%에 달해 '직주근접' 선호현상 또한 두드러졌다.

◆퇴근은 저녁 7시 이전... '직주근접' 선호

연구소는 시간대별 지하철 이용 데이

터 분석을 통해 "10년 전에 비해 서울시 직장인들의 출근시간이 대체적으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지구별 특성에 따라 출근 시간의 변화는 차별화됐다.

서남권(여의도·영등포)지역의 경우 국회·방송국·증권사 등이 위치해 있어 아침 7시대 출근 비중이 지난 2008년 대비 4.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최대 상업지구인 동남권(강남)은 아침 9시대 출근 비중이 5.8%포인트 높아졌다. IT기업이 밀집한 서남권(구로·가산디지털단

지) 직장인들도 10년 전과 비교해 아침 9시대 출근 비중이 5.3%포인트 늘었다.

저녁 7시 이전 퇴근 비중은 전 지역에 걸쳐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도심권 직장인의 저녁 6시대 퇴근 비중은 42.8%로 10년 전에 비해 6.8%포인트 높아졌다. IT기업이 밀집한 서남권(구로·가산 디지털단지)의 저녁 7~8시대 퇴근 비중 또한 8.9%포인트 감소했다.

거주지와 직장이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났다.

연구소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인 '서울 서베이'의 지난 10년간 응답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 집과 회사가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한 직장인은 지난 2008년 42%에서 지난해 51%로 증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 시간은 1시간 8분(편도 33.9분)으로 10년 전 1시간 9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통근하는 직장인은 출퇴근에 평균 42분(편도 21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집과 직장 간의 거리가 가까운 직주 근접 선호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퇴근 빨라지며 '워라밸' 챙기는 직장인 ↑... 소득 감소 우려도

서울시 직장인들의 출근이 늦어지고 퇴근은 빨라짐에 따라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직장인들도 늘어났다.

연구소가 주요 업무지구 내 택시 호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저녁시간 승차 점유

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심야 시간 사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가 확산되며 자기 개발·취미 생활과 같은 '나를 위한 소비'가 증가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3시간으로 10년 전에 비해 48분이 증가했으며, '혼자서 여가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중도 2008년 35%에서 지난해 62%로 크게 늘었다.

한편 연구소는 근무시간의 축소 및 여가 지출의 확대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봤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8.2%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 43.7%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정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시민들은 '초과 수당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아직 단축 근무를 시행하지 않은 직장인 중 29.3%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수입감소를 우려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계기준)

구분	'18년	상반기	하반기	'19년	6월	7월	보유잔고
주식	△6,678	△3,900	△2,778	7,272	244	2,047	543,266
채권	15,625	12,021	3,604	10,518	5,801	△421	124,152
합계	8,947	8,121	826	17,790	6,045	1,626	667,418

*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외국인, 국내채권 자금 4210억 회수

상장채권 3.3조 순매수, 3.7조 상환

외국인들이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서 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외국인인 상장채권 3조271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3조6920억원의 영향으로 총 4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3000억원)과 중동(-2000억원), 아시아(-3000억원)에서 순회수했다. 종류별로는 국채에는 5000억원을 순투자했지만 통안채는 9000억원을 순회수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에서 주로 순회수에 나섰다.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지난 달 말 기준 총 124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51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유럽 44조7000억원 ▲미주 11조

3000억원 등의 순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2조470억원을 순매수해 지난 6월 이후 매수기조를 유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2조4300억원을 사들인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3900억원을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미국(1조2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에서 순매수했으며, 유럽(-9000억원), 중동(-3000억원)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2000억원) ▲케이맨제도(1조2000억원) ▲캐나다(3000억원) 등이 순매수했다. 반면 ▲영국(-9000억원) ▲아랍에미리트(-5000억원) ▲호주(-2000억원) 등은 순매도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주식 보유규모는 543조3000억원이다.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다. /안상미 기자

국내은행 순이익 8.7조... 전년비 4.8% ↑

대출 늘어 순이자마진은 저조
이자이익 20.6조... 4.8% 늘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17년	'18년	18.상 (A)	1Q	2Q	18.하	19.상 (B)	1Q	2Qp	증감 (B-A)
이자이익	37.3	40.5	19.7	9.7	10.0	20.8	20.6	10.1	10.5	0.9
순이자마진(NIM)	1.63	1.67	1.67	1.65	1.68	1.67	1.61	1.62	1.60	△0.06
예대금리 차이	2.03	2.06	2.07	2.06	2.09	2.06	2.02	2.02	2.01	△0.05
이자수익률 (대출 평균금리)*	3.23	3.43	3.38	3.34	3.42	3.47	3.50	3.51	3.49	0.12
이자비용률 (예수 평균금리)**	1.20	1.36	1.31	1.29	1.34	1.41	1.49	1.49	1.48	0.18

* 대출금리: 원화대출채권 기준 ** 예수금리: 원화예수금 기준

국내은행들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순이자마진(NIM)은 악화됐지만 늘어난 대출 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

이자이익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NIM은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늘면서다. 이자수익자산은 평잔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2104조2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248조3000억원으로 140조원이 넘게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매매·평가이익이 늘었다.

명예퇴직금 등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는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에 금호타이어 등 일부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된데 따른 기저효과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

은 0.67%,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64%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 0.21%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원 관계자는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자산·자본이 증가한데 비해 당기 순이익 증가는 상대적으로 소폭에 그치면서 수익성 지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고려대, 러닝머신 시각화 기법 개발

컴퓨터·인간 학습능력 구현

신한은행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모형 적용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는 '시각화 기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고려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인공지능 산학협력과제를 통해 개발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분야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컴퓨터에서 인간의 학습 능력을 구현한 기법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머신러닝 모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신

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등에 이 모형을 적용해 업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왔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부터 석달 간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의 패턴인식 및 머신러닝 연구실과 함께 '머신러닝 모형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방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의사결정 결과와 근거를 시각화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대해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신한은행은 이번에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향후 머신러닝 적용 업무의 결과

물과 관련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고, 업무를 이용하는 고객과 직원의 편의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장현기 본부장은 "이번에 성공적으로 검증을 마친 시각화 기법은 인공지능 R&D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산학협력을 통해 머신러닝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극대화하고 고객과 직원 모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메리츠화재 상반기 당기순익 1361억... 3.1% ↑

메리츠화재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난 1361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8592억으로 11.9% 증가했다. 특히 장기인보장 신계약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587억에서 780억으로 32.9% 급증했다. 영업이익은 1880억으로 2.4% 상승했다.

다만 손해율 상승에 따라 합산비용은 108.1%로 2.8%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7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9530억원, 977억원으로 11.7%, 2.4%씩 늘었다. /김희주 기자 hj89@